

“제주 본향당 이야기”

- 조천읍 신흥리 본향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김정하/마을주민
2. 채록일자 : 2017.03.17

일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자가 바당에 가거든요. 일본놈들이 겁탈하자 하니까 여자가 도망가다가 기절한 거라 예. 기절해서 죽게 되니까 거기 모시게 된거지예.

경해서 거기 모시게 되니까, 하르방당에서 이제 할망 하르방당에 꺾 옮겨와서 할망당이 됐는데, 그래서 저기 가는 사람은 심방도 남자심방은 안가거든요, 여자라니까 여자 심방만 빌영 가곡, 남자들도 다니지 아니하곡 그런 뭇이 이십주.

다니는 사람은 그전에 신흥에, 이젠 육지사람들 많이 와부니까, 그런데 본래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나 십주. 자손들이 이어져 오는 겁주. 그래서 다니고 있주.

포제 지나나면 할망한테 또 가정 갑주. 경 허곡 해녀굿허곡 예. 경허곡 하니까 저기 가는 어른들이 여기선 옛날에 일본 많이 가니까, 친척들이 한번이나 오고 일본 가서 허곰 뭇심 심방들 말에 의해서 안 된다 하면 본향당에 와야한다, 자손이 부족하면 그디 가서 잘 공들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갑주.

원래는 옛날 여긴 이제 시대가 좀 바뀌졌지만 옛날사람들은 집집마다 1년에 한번씩, 준비하는 건 별거 없어요 메 행가곡 실과 행 강 가십주. 탄 거 차령 가는 그런 건 없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니까 이어지지만 지금 여기 시대가 육지 사람들이 많이 왕 사니까 안 할거 아니파. 그니까 지금 해안도로 지나는 사람들도, 그전에 해안도로 안 생길 때는 거기가 사람도 안 땡기고 좋아났는디, 이젠 해안도로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계난 몰라서 본향당 가서 장난도 하고 무시 것도 하고 하는데, 옛날엔 경 못했거든 마썸. 뭇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변천되노니 그렇게 안 되는 겁주.

옛날은 아이가 아프거나 무시거 집안이 좀 뭇 하면 옛날 할망들은 신에 의해서 존경했는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별로 경 안하고있주. 높이 봤는데 지금은 그게 늘어져 갑주..

1. 채록대상자 : 김석은/마을주민

2. 채록일자 : 2017.03.17

아까 형님은 박씨라 그랬는데, 솔직히 몇 백 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이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구들이 우리 제주도를 많이 침범해가지고 여러 면으로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설이 아니고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나중에 태어난 세대라 모르지만…….

왜선들이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배에 음료수가 떨어져서, 우리 마을에 옛날부터 봉천수가 많이 나왔어요 해안 주변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게 됐는데, 음료수를 받기 위해 찾아오게 됐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바다에 나가서 해초를 채취했는지, 보말 그런 해산물을 채취했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그 왜구들이 옛날 일본 사람들은 좀 특이하잖아요 입성 같은 거나 그 머리 묶엉 땡긴거나 특이한데.

겁나가지고 할머니가 도망쳐온 게 지금 불래낭할망당. 거기가 옛날엔 험했습니다 거기가. 바닷길로 험하고 지금은 해안도로가 나니까 그렇지, 거기 가가지고 숨이 딱 멎어 분거라.

그래 가지고 할머니가 거기서부터 돌아가셔서 가지고 그 할머니를 거기가 바로 밧볼래, 보리수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그 보리수나무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숨이 차서 돌아갔는데 그래서 ‘볼래당 할망당’ 하고 있습니다게.

처녀 할머니인데 우리 신흥에 거주하는 외국 나가서 거주하는 분, 육지부에 나가서 거주하는 신흥 출신들이 가정이 불편하고, 자식 같은 것도 많이 외로움을 받고. 이럴 때는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꼭 거기 찾아가가지고 제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갈 때는 본인도 가가지고 본인 말명 해도 되지만 여기는 삼신할머니라는 무당 다음으로 마을에서 어린애들한테 받아주고, 가정에 불편한 상황 있을 땐 빌어주곡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무당보단도 그 할머니 분들을 모셔다가 잔도 드리고 말명도 하고 신흥 어느 마을에 동네 어느 집에서 누가 왔습니다 자손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본향당하고 좀 틀린 게 실존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옛날 본향당은 다른 마을에 있는 본향당은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신흥 불래낭할망당은 실존인물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백 년 이어져 오는데, 지금도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중간에는 바닷가에 접해있어서 막 험했는데, 지금은 담으로 축장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곱게 단장을 했는데.

그 한가지 나쁜 점은 해안도로 거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글로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뭐 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적인 종교 사람들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소변도 하고 대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불편한 입장인데, 한번 그 저 행정기관에도 우리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신흥리 불래낭 할망당은 솔직히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되고, 할아버지 당은 마을 안에 있었는데 같이 합동으로 모시게 됐어요.

우리 마을에선 전설적인, 실존인물이지만 전설적으로 우리가 '불래낭할망당'을 추정하고 있고, 아까 포제 이야기 했는데 포제를 봉행하게 되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삼제관이 있고 집례가 있습니다. 네 분이 포제를 주도해서 하는데, 포제가 끝나면 바로 끝나는 날 마을 해신제를 같이 합니다.

해녀들이 불래낭할망당에 가서 제비도 잡아보고 영 할 때, 우리 삼제관 마을 포제 하던 삼제관들 또 집례, 이장까지 해서 다섯 사람을 날 놓고 해가지고 제비 잡아먹는 거 있지 않우짜.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운수도, 그 해 운수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